

종말론

3강. 죽음과 부활

■ 죽음, 부활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?

1. 죽음

■ 플라톤적인 이원론적 인간론에 기초한 영혼불멸설

- 플라톤적 이원론적 인간론에 기초
- 기독교의 전통적인 이해
플라톤 = (), 아리스토텔레스 = ()
- 인간 = 영혼 + 육체
-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.
- 영혼이 몸의 감옥을 벗어나 영원한 본향으로 들어가는 관문 = 죽음
→ 중세 카톨릭 신학, 종교개혁자(루터, 칼빈), 개신교 정통주의 신학

■ 일원론적(비이원론적) 인간론

- 인간은 두 실체로 구성된 존재가 아니다. = 분리가 불가능
- 육체 없는 영혼은 존재할 수 없다.
- 죽음 : 육체의 죽음 + 영혼의 죽음 = 전인적인 죽음

■ 죽음에 대한 이해

1. ()으로서의 죽음

- 죽음 = 자연스러운 현상 x
“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” - 창세기 2장 17절
-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 → 부정적 의미를 드러내 준다.
- 죽음 = 미화(x), 찬양(x), 정복(o)

2. 죽음을 정복한 ()

- 우리의 ‘죽음’을 ‘죽음’으로써 우리를 구원
- 우리의 ‘죽임’에 ‘죽임’당하심으로 우리의 ‘죽음’을 ‘죽이심’
-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안에서 ‘죽음’자체가 ‘죽음’을 당했다.

3. 죽음 앞에서의 ()

- 죽음은 이 땅의 모든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
- 가난한 자와 부자, 귀한 자와 천한 자의 구별(x), 차별(x)
- 죽음은 모든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.
신앙인과 불신앙, 선과 악, 죽음에 영향을 끼친다.

4. 죽음은 심판이자 ()

- 불신자들, 악인 = 심판, 진실된 성도, 선인 = 구원
- 죽음 =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
→ 두려워 하지 않고,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음

2. 부활

■ 영혼불멸설

- 기독교의 부활사상 : 히브리적인 통전적 인간 이해, 전체적 인간의 부활
- 헬레니즘 영혼불멸사상 : 몸이 없는 영혼의 생존을 의미.
- 고대 교회 이래 서구 기독교에서 둘이 통합
- 인간의 영혼은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중간상태에서 존속,
마지막 심판 때, 최종적인 구원, 저주를 받게 된다.

■ 전적 죽음 - 전적 부활설

- 인간은 몸과 영혼 전체, 완전한 죽음, 완전한 부활
- 죽음 = 지상의 완전한 종국, 부활 = 완전한 새 창조
- 지상의 실존과 부활한 자의 동일성은 ()에 달림

3. 마무리

■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과 죽음

1. 하나님은 영혼을 요구하신다.

‘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
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’ (눅 12: 20)

2. 영혼은 죽지 않는다.

‘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
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’
(마 10:20)

3. 죽음 이후, 인간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한다.

‘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
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’ (빌 1:23)

4. 죽음은, 인간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.

‘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
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/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
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
수 없으리라’ (롬 8:38-39)

5.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.

‘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
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’ (막 12:27)

■ 죽음과 부활

1. 기독교인의 영혼은 육체의 죽음 이후 즉시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
나라의 영생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.
2. 이 구원은 최종적인 것은 아니지만, 지상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
영광스러운 구원으로, 몸의 부활을 통한 완전한 최종적 구원을 기다린다.